

사회주의체제 쇠퇴기의 신좌파의 이론적 좌표 : 밀리반드, 라클라우 및 무페의 사회변혁이론을 중심으로

金 聖 哲*

◁ 目 次 ▷

I. 서 論	1. 이론적 배경
II. 밀리반드의 '밀으로부터의 계급 투쟁'	2. 주체의 비고정성과 다원성
1. 변혁 주체로서의 노동계급	3. 신민주적 투쟁
2. 신사회운동	IV.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신좌파의 진로
III. 라클라우와 무페의 '급진적 민주주의'	V. 결 론

I. 서 論

1989년의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1991년의 소비에트연방 해체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대변혁이라고 불리는 이 역사적 사건이 국제질서에 미친 영향 못지않게 지식인들에게 준 충격은 대단히 컸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옹호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자들은 동구 및 소련의 몰락이야말로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식 민주주의체제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승리한 사건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최종의 체제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대변혁에 대한 서구의 신좌파 지식인들의 해석은 사뭇 달랐다. 이들은 사회주의 대변혁을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역사적 필연 또는 예정된 사건이라고 보았다.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이상은 기존 사회주의체제가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던 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현실적 한계를 딛고 새로운 사회변혁을 주창하는 신좌파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과 비효율로 일관한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는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왜곡시키는 실체들이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대변혁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썩 위겼던 ‘오해의 명에’를 벗겨주는 좋은 계기였는지 모른다.

실제로 급진적 지식인들은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인권운동, 학생운동, 반전운동 등 서구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좌파 평론』(New Left Review)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변혁이론을 추구하였다. 물론 신좌파는 이론의 전개과정에서 다양한 분파를 낳았다. 그 중에서 두드러진 하나의 분파로는 마르크스주의 생산관계에서의 계급적 착취와 이를 둘러싼 계급투쟁 개념을 바탕으로 노동계급이 사회변혁의 주체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한 밀리반드(Ralf Miliband) 중심의 학자들이 있다. 이와 대조되는 분파로는 1980년대에 이르러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주의적 또는 계급 환원론적 해석을 본격적으로 비판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에 의한 사회주의 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일단의 학자들이 있다. 이 분파의 입장은 흔히 ‘후기 마르크스주의’라고 불리우며,¹⁾ 라클라우(Ernesto Laclau)와

1) 이들은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진정한 사회주의’(New True Socialism)라는 이름 아래 영국의 좌파 이론자인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Marxism Today)에서 활동한다. 원래 진정한 사회주의는 1840년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계급분열을 무시하고 인간 일반에 초점을 맞춘 사회주의라고 맹렬히 논박했던 지적 흐름으로서, 1980년대에 서구의 신좌파 지식인들이 이를 부활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Ellen Meiksins Wood, *The Retreat from Class : A New 'True' Socialism* (London : Verso, 1986), pp.1-2.

무페(Chantal Mouffe) 등으로 대표된다.

본 연구는 두 분파의 신좌파 학자들, 즉 밀리반드와 라클라우 및 무페의 새로운 사회변혁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밀리반드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던 것과는 달리, 라클라우와 무페는 직접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의 논의는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의 자유민주주의 이론가들의 승리감에 가득찬 주장과 매우 대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여부에 상관없이 이들 세 이론가들의 사회변혁이론은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두 그룹의 신좌파를 대비시키는 이유는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 반면, 이론적 출발점이 매우 상이한 까닭에 변혁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전략적 측면도 상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주의 대변혁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논하는 투쟁 또는 적대의 발생원인, 주체, 그리고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II. 밀리반드의 ‘밑으로부터의 계급투쟁’

밀리반드는 노동계급 중심의 밑으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사회변혁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몰락 이후에도 지속되는 바, 본 절은 그가 어떤 이론적 맥락에서 변혁의 주체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가, 새로운 요구들을 표출하는 신사회운동을 보는 그의 시각은 무엇인가 그리고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보고자 한다.

1. 변혁 주체로서의 노동계급

밀리반드의 이론적 논의의 출발은 무엇보다도 다원론적 민주주의의 허구

성을 지적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둘러싼 자본가와 노동계급간의 계급 투쟁을 경험주의적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논의에 바탕하여 1960년대 이후 전개된 소위 신정치(new politics) 또는 신사회운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노동계급이 사회변혁의 주체임을 강조하였다.²⁾

먼저 밀리반드는 다알(Robert Dahl)로 대표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론이 상정하는 엘리트 그룹의 다원성에 대한 주장을 비판하였다. 다원주의에 의하면, 어느 사회나 복수의 엘리트 그룹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상호견제와 권력분산에 따라 한 엘리트 그룹이 다른 영역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밀리반드는 다원주의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이 특정계급의 존재와 이 계급의 이익수호를 위한 특수한 제도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고 논박하였다.³⁾ 이 점에서 밀리반드는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충실한 마르크스주의자임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특히 마르크스의 계급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경제적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도구로 사용하는 지배계급이 분명 존재한다고 파악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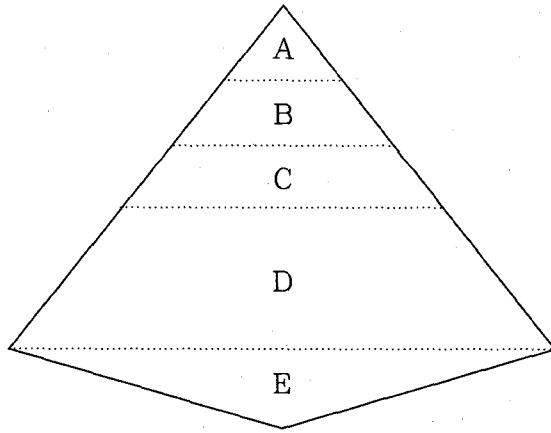
밀리반드는 후기에 이르러 이러한 마르크스식의 계급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다음의 '계급지도'(class map)를 통해 묘사하였다.

우선 지배계급에는 계급적으로 최고 상층부를 차지하는 권력 엘리트(A)와 그 밑에 위치하는 자본가 집단(B)이 속한다. 자본가 집단은 다시 둘로 나뉘어 지는데, 하나는 재벌을 형성하여 여러 기업체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본가들이며 다른 하나는 법조인, 공무원, 장교, 교육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고위 당국자들이다. 권력 엘리트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2) 국가가 무엇이며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그것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밀리반드의 도구적 국가론과 폴란차스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사이의 논쟁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이 논쟁에 대한 국내의 편저로는 박상섭, 『국가권력과 계급권력: 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논쟁』(서울: 한울, 1985).

3) Ralf Miliband,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1969), p. 23.

4) Ralf Miliband, *Divided Societies: Class Struggle in Contemporary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19, 21-3.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부르조아로서 흔히 상위중간계급 혹은 중간계급이라고 불리운다. 이들은 경제적인 수혜계급일 뿐만 아니라 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의견선도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배계급에 속한다.

부르조아 밑에는 때때 부르조아 혹은 하위중간계급(C)이 위치한다. 이 계급 역시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소규모의 자영업자들로서 일정 수의 고용인을 채용하고 있는 집단이며,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구분한 것과 같이 노동과정에서 자본가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관리직 계통의 산업 노동자 집단이다.

노동계급(D)은 선진 자본주의사회에서 전체 인구의 2/3~3/4를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한편, 계급 피라미드의 맨 밑에 위치하는 하층계급(E)이라고 불리우는 사회계급은 실업자, 지체부자유자 등으로서 공공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밀리반드가 이상과 같이 계급구분을 시도한 목적은 결국 왜 노동계급이 변혁의 주체가 될 수 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우선 그의 논의는 때때 부르조아가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때때 부르조아는 부르조아와 노동계급의 중간적 위치에 놓임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대한 자율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계급이며, 따라서 사회변혁에 대

한 포괄적인 프로젝트를 가질 수 없는 계급이라는 것이다. 밀리반드는 더 나아가서 이 계급이 때때로 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침여한 사회·정치적 갈등이 노출될 때 권력 엘리트와 부르조아의 편에 서서 보수주의의 내부 핵심이 된다고 기술하였다.⁵⁾

그러나 유의할 것은, 때때 부르조아가 보수주의적 성향을 갖는다고 해서 곧 노동계급이 사회변혁의 주체가 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밀리반드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밀리반드는, 생산과정에서 부르조아에 의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노동계급이 수적인 우세를 이용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전복하고 급기야는 새로운 생산양식을 구축할 것이라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기존의 많은 마르크스주의 비판가들과 마찬가지로, 밀리반드도 오늘날의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계급이 단합된 힘(마르크스가 생각한 만큼)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즉, 그는 노동계급이 성별, 종교, 인종 등 다양한 사회적 균열(cleavage)을 따라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동시에 기술 진보, 노동의 국제적 분업, 화이트 칼라의 숫적 증가와 역할 증대 등으로 쇠퇴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반드는 이상과 같은 노동계급 분열의 형식적 요인들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골(unbridgeable gulf)을 형성하리라고 파악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광부, 철도원, 교사, 간호사 등은 자기 자신들의 직업 부문에서 노동조합을 형성하여 더욱 강력한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때로는 때때 부르조아를 포용하여 부르조아에 대한 계급투쟁에 연합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⁷⁾ 즉, 밀리반드는 수직적 연대로서의 직업집단내의 노동운동을 바탕으로 노동계급이 하나의 결속된 또는 통일된 계급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밀리반드는 노동계

5) *Ibid.*, p.51.

6)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분열에 대한 주장은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데, 특히 노동계급이 하나의 보편적 계급(universal class)이 아니라는 주장에 그 특징이 있다.

7) Miliband, *Divided Societies*, p.47.

급 중심의 ‘밑으로부터의 계급투쟁’(class struggle from below)를 주창하게 되었다.

밀리반드는 사회주의운동에 있어서 사회민주당의 역할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사회변혁운동에서 노동계급의 주체적 역할의 불가피성을 재확인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민주당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온건한 점진적 개혁과 공존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밀리반드가 지적하는 사회민주당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이다. 한편으로,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스트라이크나 사보타주 같은 산업투쟁을 반대하는 한편, 협상을 통한 개혁을 주장하며 정치적 교환(political exchange)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민주당이 제시한 협상을 통한 개혁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처럼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역사적 사례도 있다. 또한 사회민주당이 평등, 정의, 공평, 협동 등과 같은 가치를 내세우며 고차원적인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조를 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밀리반드는 사회민주당의 이러한 비전이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원하는 점진적인 개혁과 일맥상통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⁸⁾ 다른 한편으로, 부르조아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중용 또는 온건(moderation)을 고무하는데, 사회민주당 소속의 노동조합 지도자와 의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노선에 이끌려 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회민주당의 지도부는 온건한 성향을 가진 노동조합 지도자와 당관료들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당내 비판 세력을 무책임한 유토피안 또는 분열주의자로 매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민주당은 좌파에 대한 반대세력이며 정치를 非과격화(de-radicalization)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밀리반드는 주장하였다.⁹⁾

밀리반드는 이상과 같이 사회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는 반면, ‘사회주의 의식’(socialist consciousness)의 확산과 계급투쟁의 전개를 위해 서구의 공산당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공산당

8) *Ibid.*, pp.72-73, 77.

9) *Ibid.*, pp.77, 84.

도 사회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안에 존재하지만¹⁰⁾ 노동계급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끊임없이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수행해야 할 것으로 그는 보았다. 밀리반드는 노동계급 스스로는 혁명의식에 대조되는 노동조합의식(trade union consciousness)밖에 발전시킬 수 없다는 레닌의 이론을 따르면서, 공산당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의식을 ‘외부로부터’ 부여해준 세력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특히 공산당이 적극적 행동주의자들을 교육시키는 중요한 기구라고 보았다.¹¹⁾

결국, 밀리반드가 사회변혁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주체적 역할을 주장하는 동시에 공산당의 교양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은 사회변혁운동에 있어서 노동계급이 지닌 능력의 한계를 사실상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 된다. 이러한 한계때문에 그는 우리가 다음에서 논하고자 하는 신사회운동을 또 다른 형태의 ‘밑으로부터의 계급투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 밀리반드가 예로 든 프랑스 공산당의 경우를 살펴보자. 여타의 서구 공산당처럼 프랑스 공산당은 제2차세계대전 전에 혁명 개념을 포기하고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존속하는 한편 소련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프랑스 공산당은 1939년 8월 독·소 불가침조약(Nazi-Soviet Pact)이 체결된 직후인 9월에 있었던 프랑스·영국 연합군의 독일공세를 제국주의 전쟁으로 보는 소련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공산당을 해체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세에 몰렸던 프랑스 공산당의 입지는 1941년 6월 독일의 소련 침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기회를 맞게 되었는데, 이는 공산당원들이 지하에서 독일군에 항전하는 전위대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전후에는 프랑스 공산당의 구국항전의 공헌이 인정되어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공산당의 입지회복과 연정에의 참여는 프랑스 정부의 대식민지 정책(즉, 식민지 독립운동의 억압)과 같은 극히 보수적인 정책들을 옹호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 공산당은 전쟁으로 손상된 부르조아적 사회질서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 공산당의 이같은 입장, 즉 체제 옹호세력으로서의 노선은 1968년 5월 위기때 학생과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데서 더욱 명료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Ibid.*, pp.87-90 ; Philip Armstrong, Andrew Glyn and John Harrison, *Capitalism since 1945*, 김수행 역,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서울 : 동아출판사, 1993), pp.295-304.

11) Miliband, *Divided Societies*, pp.91-2.

2. 신사회운동

밀리반드는 반인종운동, 평화운동, 학생운동 등 사회운동이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왜 오늘날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사회운동이라는 모습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정당(때로는 공산당까지 포함)의 능력의 한계때문이다. 이것들은 신사회운동에 의해 제시되는 여러가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노동계급은 인간 해방을 위한 요구들을 다 수용할 만큼 보편적 계급이 되지 못했으며, 노동운동이 그런 목표를 성취하는데 적절한 도구도 아니었다는 주장이다.¹²⁾

밀리반드는 현존 선진 자본주의사회를 변혁시키는 과정에서의 신사회운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노동계급 중심의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밀리반드는 선진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 구분이 계급(주로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른)외에도 성별, 인종 등 여러가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성 혹은 흑인노동자가 부르조아에게 착취당하는 정도가 남자 혹은 백인 노동자의 경우보다 더욱 심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그들의 권익을 위한 신사회운동은 노동운동과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을 가지면서도, 노동계급의 지배계급에 대한 압박 또는 투쟁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것의 독특한 형태(distinct form of pressure or struggle)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¹³⁾

다른 한편으로, 신사회운동에는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부르조아와 삐띠 부르조아도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계급을 초월한 운동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밑으로부터의 투쟁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반드는 신사회운동이 현존하는 권력구조, 특권과 지위 배분의 불공정성, 전통적 사고방식 등을 부정하는 운동세력의 범위

12) *Ibid.*, p.98.

13) *Ibid.*, p.97.

안에 다양한 계급적 성분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사회변혁의 한 추진력으로 파악하였다.

신사회운동의 확산을 목격하면서 밀리반드가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그것이 이념적인 측면에서 왜 반드시 사회주의적(socialist)이어야 하는가를 정당화시키는 작업이었다. 그가 예로 든 여성운동에서의 자유주의적, 급진적, 사회주의적 운동을 비교하면서 그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자.¹⁴⁾

첫째, 자유주의적 여성운동(liberal feminism)은 법 앞에서 평등이라는 형식적 가치에 근거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일의 분담과 공평을 주장한다. 여기에 속하는 운동가들은 출산휴가, 탁아소, 직업기회의 균등 등 매우 현실적인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여성운동의 한계는, 남녀불평등의 근원을 전통과 편견에서 찾으며,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의문시하기보다 그 틀 안에서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그들이 고민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생산관계에서의 지배와 착취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는 것이 밀리반드의 지적이다.

둘째, 급진적 여성운동(radical feminism)은 어떠한 사회적 균열(cleavage)보다도 성별에 의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성차별은 생산양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파악한다. 더 나아가서 이 여성운동은 인류의 역사란 남성이 여성을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점철된다고 말한다. 급진적 여성운동에 의하면, 남성 지배의 사회적 구조를 해체시켜야 불평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밀리반드는, 남성 지배의 전형인 가부장제가 붕괴되고 남녀불평등이 완화된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다른 사회적 균열에 의해 여전히 지속된다는 점을 급진적 여성운동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밀리반드가 여성운동 중 가장 선호한 사회주의적 여성운동(socialist feminism)은 이상의 두가지 운동과는 달리 경제, 사회, 정치구조 속에

14) *Ibid.*, pp.100-3.

서 문제의 근원을 찾으면서 사회주의에서는 성차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이 여성운동은 성별에 의한 불평등을 계급적 불평등과 연관시킬 뿐만 아니라 후자가 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한다.

밀리반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도는 계급적 위치(class location)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부르조아 여성과 노동계급의 여성이 남성 고용인으로부터 받는 성적 불평등의 정도가 다른데, 그 이유는 후자가 전자보다도 더 열악한 생산관계에 놓이게 되며 부르조아 남성이 남성으로서가 아니라 고용인으로서 더욱 큰 착취와 억압을 가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밀리반드는 계급적 관계의 해소가 성차별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그는 계급적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상과 같은 설명이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 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은 밀리반드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계급중심적 분석은 곧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의 우위(primacy)라는 맥락에서 또는 적어도 노동운동과 연대(alliance)하여 전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여기서 노동운동의 우위란 노동운동이 밀으로부터의 투쟁의 주된 수단이라는 것을 뜻하지만 결코 신사회운동에 대한 지배 또는 그것의 흡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⁵⁾ 따라서, 밀리반드가 의도하는 바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하는 사회변혁을 위한 연합에 신사회운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라클라우와 무페의 ‘급진적 민주주의’

밀리반드는 불평등, 착취, 억압 등 모든 사회적 악의 근원을 자본주의체제의 생산관계와 계급적 위치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신사회운동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의 증대가 노동운동을

15) *Ibid.*, p.110.

중심으로 한 ‘밑으로부터의 압박 또는 투쟁’, 즉 계급투쟁의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라클라우와 무페는 매우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즉, 이들은 소위 계급환원론(class reductionism)을 반박하면서 사회적 지위는 생산관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따라서 계급적 적대는 여러가지의 사회적 적대관계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본 절은 라클라우와 무페의 이상과 같은 주장의 이론적 배경과 이들에 의해 주장되는 ‘신민주적 투쟁’(new democratic struggle) 또는 ‘급진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밀리반드의 것과의 비교를 염두에 두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1. 이론적 배경

라클라우와 무페가 신민주적 투쟁 또는 급진적 민주주의 전략을 논하게 된 데에는 1960년대와 1970년의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변화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노동계급의 혁명적 성격이 퇴색해지면서 그람시의 진지전 개념과 헤게모니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신좌파 이론이 성장하였다. 그러던 중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1979년 영국 선거에서 승리한 대처가 기존의 복지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반면 자유시장원칙을 주장하는 동시에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를 내세우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대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가족, 책임, 권위, 전통 등의 개념을 내세워 신보수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¹⁶⁾ 신좌파는 이러한 신보수주의의 약진이 계급정치의 퇴조를 의미하는 동시에 담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신좌파의 이론적 논의도 이제 계급적 적대를 통한 헤게모니의 장악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담화를 통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논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적 흐름의 선봉에 선 학자가 바로 라클라우와 무페이다. 이들은 신민주

16) 구도완,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 라클라우와 무페를 중심으로,” 한상진 편저,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1991), p.129.

적 투쟁 또는 급진적 민주주의라는 기치아래 사회변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소위 '계급으로부터의 후퇴'를 주장하면서 계급환원론을 비판하였다.

라클라우와 무페의 등장은 이상과 같은 역사적 배경 외에도 풀란차스(Nicos Poulantzas)에 의한 신좌파 내부의 이론적 균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풀란차스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에서 생산관계 중심적이고 계급중심적인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서 이탈함으로써 라클라우와 무페로 하여금 적대관계의 다원성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¹⁷⁾

첫째는 풀란차스가 계급투쟁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계급구분이 생산관계보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는 점이다.¹⁸⁾ 그에 의하면, 국가에 의해서 조직되는 파워블럭에 대항하는 민중동맹에는 생산직 노동자와 신쁘띠 부르조아가 속하는데, 생산관계에 의해 신쁘띠 부르조아를 구분해내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산업화로 인해 회사원과 같은 사무직 노동자와 전문기술자 또는 감독진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 등 신쁘띠 부르조아인 화이트 칼라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는데, 화이트 칼라를 노동계급과 구분짓는 결정요인이 문제가 된다. 화이트 칼라와 생산직 노동자는 다같이 생산수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어서 부르조아로부터 착취를 당하며, 이들은 공히 생산관계에서 부르조아를 위해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따라서, 생산관계가 이들 두 계급을 구분하는 요소인 것으로 보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한편, 정치적 그

17) 여기서 필자는 이들, 특히 무페가 그람시를 탈(脫)계급환원론의 선구자로 보았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유의하고자 한다. 실제로 무페는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 개념을 분석하는 대목에서 그가 탈경제주의적 해석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무페는 그람시가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허위의식으로 간주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 반기를 들었으며 이데올로기의 능동적 역할을 파악하면서 그것의 계급귀속성을 논박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녀는 이러한 그람시의 입장이 풀란차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았다. Chantal Mouffe, ed., *Gramsci and Marxist Theory*, 장상철 이기웅 역, 『그람시와 마르크스주의이론』(서울 : 녹두, 1992), pp.199-241 참조.

18) Nicos Poulantzas,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 NLB, 1975), p. 224.

리고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계급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 폴란차스의 논리이다.

폴란차스가 말하는 신쁘띠 부르조아의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요소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독특한 이익옹호를 위해 때로는 노동계급의 편에 섰다가 때로는 부르조아의 입장을 취하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설사 신쁘띠 부르조아가 노동자의 편에 선다고 하더라도 노동계급의 일부는 될 수 없다고 한다.¹⁹⁾ 아뭏든 폴란차스가 계급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강조한 것은 경제환원론에 입각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로부터의 이탈의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폴란차스가 국가론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적인 것의 우위를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폴란차스의 이러한 주장은 생산양식을 이루고 있는 층위들의 ‘상대적 자율성’에 관한 전환기적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생산양식은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그리고 이론적 지식) 층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층위의 독특한 결합의 특성 혹은 통일성이 각 층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의문은 생산양식을 구성하는 층위들간의 일반적 관계는 어떤 것인가, 특히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이다. 주지하다시피, 폴란차스는 이 문제에 있어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로부터 크게 벗어났다. 전체로서의 사회가 경제에 의해서 결정되며 상부구조가 경제적 관계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던 마르크스와는 달리, 폴란차스는 각 층위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경제가 ‘최종 층위에서’ 복합적 전체인 생산양식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폴란차스는 결정한다(determine)는 것과 지배한다(dominate)는 용어를 엄밀히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는 한편으로 경제가 ‘최종 층위에서’ 복합적인 전체 사회구조인 생산양식을 결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생산양식이 최종 층위에서 경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곧 경제가 언제나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²⁰⁾ 폴란차스는 결정한다는 것과 지배한다는 것 사이를 구분함으로써 층위들의

19) *Ibid.*, p.250.

20) Nicos Poulantzas,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London, Verso), p.14.

상대적 자율성 특히 정치 총위인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그의 논의를 전개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곧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정치적인 것의 우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던 셈이다.

세제는 폴란차스가 사회주의로의 이행과정을 순조로운 민주화의 과정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의 변화는 단절이 없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폴란차스는, 국가가 어떤 틈도 없는 하나의 불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대항하는 세력에 의해 교체되어야 한다는 소위 '이중권력'론을 부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계급내 혹은 계급간의 모순이 응축되어 나타나는 장(場)이며, 외부의 세력에 의해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내용이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적인 방법이란 의회, 관료제, 강제적 억압기구, 이데올로기 기구 등에서의 점진적 잠식을 통한 국가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²¹⁾

이상과 같은 폴란차스의 세가지 주장, 즉 계급구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중요성, 국가론 중심의 정치적인 것의 우위성, 그리고 민주적 변화의 연속성의 강조는 향후 신좌파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환원론'에서 벗어나는 논리적 틈을 마련해 주었다.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사회변혁에 있어서 담화의 역할과 적대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급진적 민주주의론을 편 라클라우와 무페에 의해 무르익게 되었다.

2. 주체의 비교정성과 다원성

라클라우와 무페의 급진적 민주주의론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계급환원론에 대한 비판이었다. 즉, 그들은 계급적 주체가 필연적으로 모든 사회적 주체라는 주장을 반박하였다.²²⁾ 그들은 각 개인이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는 복합

21) Nicos Poulantzas,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 Verso, 1980), pp.254-9.

적이며 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담화에 상응하는 복합적인 주체로서의 위치가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라클라우와 무페가 계급환원론을 반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 그들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 자본주의의 안정으로 노동계급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노동과정에서 자본의 지배가 점점 공고화되고 기술혁명에 의해 화이트 칼라가 급속히 성장하여 노동자 계급은 하나의 계급으로 불리우기 힘들 정도로 분절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그들은 노동계급이 생산관계에서의 착취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일된 정치세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던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의 논박은 마르크스보다는 마르크스주의자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루어졌는데, 반박의 대상은 노동계급의 통일성과 그것의 사회주의적 추진력이 외적 개입이 없는 단순한 생산력 발전의 결과라는 마르크스주의의 명제이다. 라클라우와 무페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경제적 현실 그 자체는 노동자로 하여금 공동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낳지 않으며, 적대관계 또한 생산관계에서 잉여가치의 착취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관계의 바깥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²³⁾ 예를 들어, 저임금의 노동자들은 사회문화적 재화를 접하는 데 있어서 적대를 느끼게 되고, 그들이 관여하는 재화의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권리의 자각과 적대관계도 일정하지 않게 된다. 이 점에서 라클라우와 무페는 노동계급이 통일된 사회주의 세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논리에 회의를 품게 된 것이다.

셋째, 라클라우와 무페가 플란차스에 의해 구체화된 개념들인 ‘최종 층위에서 결정’ 그리고 ‘상대적 자율성’을 논박하였다. 그들은 경제에 의한

22) Chantal Mouffe, "Hegemony and New Political Subjects : Toward a New Concept of Democracy," in G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London : Macmillan Education, 1988), p.90.

23) Ernesto Laclau and Chantal Mouffe, "Post-Marxism without Apologies," *New Left Review*, 166 (1987)의 번역본, "포스트 맑스주의는 변명하지 않는다," 이경숙 전호관 엮음, 「포스트맑스주의?」(서울 : 민맥, 1992), p.132.

최종 층위에서의 결정을 논하게 되면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개념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와 같은 생산양식내 여타의 층위가 경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논리적으로 양자가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라클라우와 무페에 의하면, 층위들간의 상호작용은 결정 범주의 측면에서 사고될 수 없으며, 사회가 인지가능한 구조로 재구성되는 기반에서 최종 층위는 없다는 것이다.²⁴⁾ 폴란차스 개념에 대한 이러한 논박은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클라우와 무페의 계급환원론에 대한 비판은 한편으로 폴란차스가 정치적인 것의 우위를 주장하는 논거가 되었던 상대적 자율성에서 출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급환원론으로부터 벗어나와 사회변혁에 있어서 주체의 중심부재 또는 비고정성(unfixity)이라는 논리로 옮겨가게 된다. 사회관계가 복합적인 것처럼 사회적 적대도 다원적이라는 것이다.²⁵⁾ 달리 말하자면, 모든 사회적 관계는 그것이 종속관계로 접어들기만 하면 곧 적대관계로 변하며, 따라서 생산관계에서의 종속으로 인한 적대는 여러 적대관계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²⁶⁾ 또한 그들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적 적대들을 결합하여 사회변혁을 위한 출발점을 정한다든가 혹은 그 과정을 수정하는 어떤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적 적대들이 결합되는 형태가 미리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고 한다.²⁷⁾

라클라우와 무페가 논한 주체의 중심성 부재 또는 비고정성에 대한 주장은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서 노동계급이 중심성 또는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서 보다 구체화된다. 그들은 우선 반자본주의 투쟁에서

24) *Ibid.*, pp.115-7.

25) 적대(antagonism), 종속(subordination), 억압(oppression), 지배(domination) 등의 개념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종속은 고용자에 대한 피고용자의 관계처럼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을 말하고, 종속이 적대로 변형되었을 때 억압관계라고 부른다. 그리고 억압관계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종속관계들의 묶음이 지배관계이다. Ernesto Laclau and Chantal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London: Verso, 1985), pp.153-4.

26) Mouffe, "Hegemony and New Political Subjects," p.91.

27) Laclau and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pp.168-9, 180.

노동계급이 특권화된 역할을 차지한 적이 없다는 경험적 사실을 들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직접적인 적대가 발생하기 보다는 환경오염, 지역불균형, 무기경쟁 등과 같은 문제들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적대가 전개된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관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생산관계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다고 라클라우와 무페는 설명한 바 있다.²⁸⁾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반자본주의 투쟁이 민주주의의 확장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즉, 반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안에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붕괴되더라도 또 다른 억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라클라우와 무페의 중심성 부재에 대한 논의는 밀리반드가 노동운동 중심의 사회변혁운동을 주장했던 것과 침예한 대조를 이룬다.

사회변혁에 있어서 주체의 중심부재와 비고정성에 관한 라클라우와 무페의 논의는 담화(discourse) 개념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들이 말하는 담화란 말하기 또는 쓰기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의미화를 포함한다.²⁹⁾ 특이할 만하게도, 하나의 표현은 수많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담화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적 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라클라우와 무페의 주장이다. 또한 담화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화적인 것과 비담화적인 것은 적대적이지도 않으며 모든 인간의 역사와 사회가 담화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주체의 개념을 해체하고 객관적 상황을 무시하는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의 인식론으로부터 크게 영향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신민주적 투쟁

라클라우와 무페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날 확산되

28) “포스트 맑스주의는 변명하지 않는다,” p.134.

29) Ernesto Laclau, “Metaphor and Social Antagonisms,” in Nelson and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p.254.

고 있는 신사회운동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신사회운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신민주적 투쟁’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였다. 신민주적 투쟁이란, 사회변혁을 위한 담화가 정치영역에서부터 경제영역, 그리고 사회영역(성, 인종, 세대, 지역, 종교, 반권위주의, 생태 및 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불평등과 종속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투쟁을 말한다.³⁰⁾ 이것들은 분명 계급투쟁으로 간주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다르다.

여기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적대관계들이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또는 방사효과, 등가효과를 가지면서 확산된다는 점이다. 즉, 한 영역에서의 적대는 다른 영역으로 급속히 전파되는데 그것은 노동계급과 같은 어떤 특별한 주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접합된다는 것이다.³¹⁾ 전시효과에 대한 설명은 그들이 인용하였던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저작 『미국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중의 민주주의 혁명에 관한 다음 부분에서 큰 영감을 얻었던 것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다른 영역에서의 평등이 정치세계에 침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인간이 한 측면에서는 불평등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평등한 상태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은 어느날 갑자기 모든 측면에서 평등하게 될 것이다.³²⁾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가 서구 사회에서 하나의 상식으로 여겨지게 되자 토크빌이 말했던 ‘조건들의 평등화’(equalization of conditions)에 의해 위계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라클라우와 무페는 신민주적 투쟁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첫째, 그들은 포드주의(Fordism)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생산

30) Mouffe, “Hegemony and New Political Subjects,” p.91 ; Laclau and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p.159.

31) Laclau and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p.181.

32) Mouffe, “Hegemony and New Political Subjects,” p.89에서 재인용.

양식이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찾았다. 1940년대부터 박차가 가해진 포드주의는 표준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계적인 체계로서, 이것은 자연히 대규모의 소비를 촉진하여 서구 사회를 광대한 시장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결국 인간의 삶을 '상품화'시켜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시켰다. 예를 들어, 문화, 레저, 병, 교육, 성,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모든 측면에서 상품화된 삶을 누려야만 했다. 라클라우와 무페에 의하면, 이러한 포드주의의 영향은 결코 벨(Daniel Bell)이 말하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마르쿠제(Herbert Marcuse)가 두려워한 일차원적 인간을 낳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포드주의와 상품화 과정 중에서 발생한 자원의 고갈, 환경오염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생태학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도시화 또는 지역불균형에 대한 저항이 전개되었다.³³⁾ 둘째, 라클라우와 무페는 케인즈적 복지국가 개입의 증대에 따른 관료제의 팽창과 공적영역의 증대를 들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속을 발생하였으며, 사적 영역을 축소시켜 새로운 사회적 권리를 위한 저항이 나타나게 되었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개입의 결과 복지의 영역이 확대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권운동 등 국가에 대한 요구들이 더욱 증대되었다는 점이다.³⁴⁾

밀리반드와 라클라우 및 무페 사이에 변혁주체에 대한 설명이 다른 것처럼, 사회변혁의 전략에 대한 주장에도 차이가 있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전 시효과에 의해 확산되는 민주주의 혁명을 더욱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다. 즉, 그들은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이룩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누가 과연 헤게모니적 담화를 만들어 내는가 또는 누가 다원적인 적대들을 접합하는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들은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두가지 답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도 될 수 없거나 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의 행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불확정적 다

33) Laclau and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pp.162-3.

34) *Ibid.*, p.163.

원적 주체인 민중이고, 후자의 경우 지식인이 될 수 있다.³⁵⁾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당이나 조직을 헤게모니적 담화를 구성하는 주체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것들은 다양한 운동을 접합시키기에는 너무 권위주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⁶⁾

다만 그들이 성공적인 신민주적 투쟁을 위한 도구로서 확장적 헤게모니(expansive hegemony)와 조직적 이데올로기(organic ideology)가 필요하다고 논하였다. 전자는 등가효과를 발휘하여 다양한 민주적 요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파의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투쟁을 단합시키는 후기산업주의(post-industrialism) 이념이라는 것이다.³⁷⁾

이상과 같은 전략은, 최근 흔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시민사회라는 이원론적인 구분에 기반을 두고 후자가 전자를 전복시키고자하는 투쟁전략과 판이하게 다르다. 실제로 라클라우와 무페는 국가 자체가 동질적인 매체라기 보다는 수많은 민주적 적대들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³⁸⁾ 이 점은 밀리반드가 말한 노동운동 중심의 ‘밑으로부터의 압박 또는 투쟁’이라는 전략과 대조된다.

IV.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신좌파의 진로

사회변혁을 논의하였던 밀리반드와 라클라우 및 무페가 사회주의 대변혁을 어떻게 보았으며, 이 사건에 즈음하여 나타났던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식의 ‘역사 종말론’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가? 밀리반드는 올해 5월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답을 제시했던 반면, 라클라우와 무페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

35) Wood, *The Retreat from Class : A New 'True' Socialism*, pp.62-3.

36) Mouffe, "Hegemony and New Political Subjects," p.104.

37) *Ibid.*, pp.99, 103.

38) Laclau and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p.180.

가 자유민주주의, 즉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펼쳤던 경계의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한 두 그룹의 이론가들의 반응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밀리반드 중심의 분파는 기존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³⁹⁾ 첫째, 그들은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의 불명예를 지우는 중요한 계기라고 보았다. 정치적 실체로서 존재하였던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는, 단순히 생산수단의 공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진정한 사회주의의 의미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개념을 왜곡시킨 체제였다는 것이다. 둘째, 그들은 특히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 세계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강대국을 중심으로한 자본주의체제를 형성하게 되었으며,⁴⁰⁾ 사회주의체제들은 모두 자본주의체제에 종속되어 주변 자본주의(peripheral capitalism)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간주하였다. 셋째,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베트남(사실은 북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등 현존 사회주의권을 자본주의체제의 주변부에 흡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들은 파악하였다. 체제의 생존을 위해 중국은 이미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었으며, 베트남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중국보다 더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대변혁에 대한 이상과 같은 평가는 자신들의 사회주의 개념을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우파, 즉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위협은 후쿠야마의 ‘역사 종말론’에 잘 나타나 있다. 후쿠야마는

39) Leo Panitch and Ralf Miliband, “The New World Order and the Socialist Agenda,” R. Miliband and L. Panitch, eds., *Socialist Register*, 1992 (London: Merlin Press, 1992), pp.3-4.

40)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계체제론의 입장에서선 학자들은 오히려 ‘팍스 아메리카나’의 해체로 본다. 대사회주의체제를 위한 미국 중심의 구도가 변형되어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라는 3극체제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고 파악한다. 이수훈·여현덕, “전환기 세계체제와 한국 정치·사회 변화의 흐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 정치·사회의 새흐름』(서울: 나남, 1993), pp.31-3.

사회주의 대변혁으로 묘사되는 최근의 세계적 변화가 인간사회의 진화패턴, 즉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 조류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며, 일부 지역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실패가 결코 이러한 진화패턴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시장경제에 기반한 서구적 전통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말한다.⁴¹⁾

후쿠야마의 견해에 대해서 밀리반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자본주의는 소수의 소유계급이 산업과 재정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까지 장악한 체제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조건의 평등을 추구하려는 민주주의를 침해할 것이기 때문에 병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후쿠야마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선거에 의한 정부의 선택과 같은 지극히 형식적인 개념의 민주주의라고 보면서, 이런 민주주의는 부르조아의 대변자인 정치 엘리트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장치라고 비판하였다.⁴²⁾ 따라서, 밀리반드는 악의 근원인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대안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한편, 라클라우와 무페는 밀리반드식의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 않지만,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이미 후쿠야마식의 논의를 반박해놓은 셈이었다. 이들에 의하면, 신보수주의는 새로운 적대의 출현을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이해하면서 국가를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별개의 실체로서 간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헌팅톤(Samuel P. Huntington)과 브레진스키(Zbignew Brzezinski)로 대표되는 이런 지적 흐름이 민주주의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념 자체를 재규정했다고 비판했다.⁴³⁾ 이들은 또한 하이예크(F. A. Hayek), 프리드만(Milton Freedman), 노직(Robert Nozick)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개입주의적 국가와 그것의 관료제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였지만, 이런 관점이 오히려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복지국가를 해체

41)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42) Miliband, "Fukuyama and the Socialist Alternative," *New Left Review*, 193 (1992), p.110.

43) Laclau and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pp.165-6, 173.

하려는 의도로 악용되고 말았다고 주장하였다.⁴⁴⁾ 결국 신자유주의든 혹은 신보수주의든 우파의 논리는 결코 종속으로부터의 해방과 평등한 권리의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보장해주지 못했으며, 따라서 신민주적 투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충실한 마르크스주의자인 밀리반드의 노동계급 중심의 사회변혁이론과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로 대표되는 라클라우 및 무페의 비고정적이고 다원적인 주체에 의한 급진적 민주주의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들이 제기한 논의를 요약·비교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밀리반드는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계급이 보편적 계급으로서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는 또한 신사회운동이 새로운 요구를 내세우며 등장하게 된 이유도 노동운동의 한계 때문임을 자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악의 근원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사회변혁의 주체는 생산관계에서의 피착취자인 노동계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밀리반드 주장의 상당 부분이 강령적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사회운동에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때때 부르조아가 참여하여 초계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동운동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 당위적인 전략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한편으로 자본주의 발전과 변화로 인하여 노동계급이 분절화되었다는 경험적인 사실을 입증하고 다른 한편으로 계급환원론의 논리적 모순성을 비판하면서 사회변혁의 주체의 다원성과 비고정성을 주장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적대는 단순히 생산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

44) *Ibid.*, pp.171-2, 175.

나라 그 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그것들은 담화에 의해 서로 복합적으로 접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이 사회변혁의 특권적 위치에 놓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들 두 그룹의 신좌파 이론가들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도 이견(異見)을 보였다. 밀리반드는 밑으로부터의 계급투쟁을 주장했던 만큼, 아무리 점진적인 민주주의적 방법을 논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사회변혁의 궁극 목표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라는 개념에 포괄된다. 한편 라클라우와 무페는 자본주의가 극복되더라도 새로운 적대와 억압은 지속될 수 있다고 간주하므로 신민주적 투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시효과나 등가효과에 의해 신민주적 투쟁은 확산되고 있지만, 급진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확장적 헤게모니와 조직적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반(反)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의 확장에 달려 있다고 봄으로써, 전자가 후자에 포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밀리반드, 라클라우, 무페는 공히 우파의 논리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사회주의 대변혁과 그에 따른 우파의 논리(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론으로 대표되는)에 대해, 밀리반드는 오히려 사회주의 개념에 대한 오해의 불명예를 벗겨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라클라우와 무페는 밀리반드와 같은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찌기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 개념을 재조정 혹은 축소·왜곡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 이를 논박한 바 있다. 결국 그들의 논리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민주주의론이 계속 유효하다는 셈일 것이다.